3. 類撰華夷雜錄

‘화이잡록’은 고창에 세거한 康尹煥氏가 보존한 上下 2권이며 單冊으로 필사본이다, 저자의 친필 사본이지만 어미와 廣廓과 行線을 인쇄한 바탕에 썼으므로 품위와 격식을 갖추었다. 책 이름과 저자에 대하여 ‘類撰華夷雜錄 卷之上 太平散人 信川 康侯晉 子順甫[13] 集編’이고 표지에는 ‘華夷雜錄 上下合 太平散人著’약간의 차이기 있을 뿐이다. 中國地圖와 皇城地圖, 그리고 변방을 포함한 天下地圖기 수록되었다.

서문에 의하면 저자가 72세였던 1756년 10월 10월 상순에[14] 썼으며, 晩年까지 공백을 채우지 못한 우리나라의 ‘姓氏가 있으나 이미 늙었으므로 그대로 과제로 남겨둔다’고 서문에 밝힌 부분이 확인된다. 책의 곳곳에는 부분을 오려내고 새로 글씨를 써서 보충하였을 정도로 저자는 만년까지 꼼꼼하게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하였다고 생각한다. 지도 3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 中國總圖, 북경의 軍事地圖인 皇城關防之圖,세계지도인 八荒總圖이다.

팔황총도는 글자가 희미할 정도로 낡았으며 저자의 손때가 묻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천하를 華夷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던 전통시대의 공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 책에 쓰인 서체는 이재곤 선생이 소개한 ‘감영록’보다 略字와 俗字는 적으나 몇 가지 특이한 속자가 상통한다. 필자는 공개된 ‘감영록’이 저자의 친필본이고 '화이잡록'보다 먼저 쓰였다고 생각된다. ‘화이잡록’을 통하여 저자는 자신이 남긴 저술을 만년까지 다듬고 보충하였으므로 서문이 들어 있는 다른 저술도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화이잡록』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당시의 견해와 중국과 그 주변의 여러 민족에 대한 세계관을 서술하였다. 또한 그가 알 수 있는 고금의 여러 나라 이름과 민족의 위치와 풍속을 간단히 들고 중국의 성씨를 열거하여 시조와 기원지를 약술하였으며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성씨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항목을 순서대로 열거하고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화이잡록』은 현존하는 그의 다른 저술보다 전거를 밝힌 부분이 많으므로 그가 인용한 전거를 알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가 인용한 서적은 造化論’ 史記 天文(志?),曆會通書 皇極經(• 世書?), 淮南子, 綱目, 博物志, 醫書(醫經), 外紀, 芝峯集, 萬國圖, 周書, 內經 등이 전거로서 자주 쓰였다.

『화이잡록』에서 附東方姓氏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씨의 기원과 본관과 시조설화를 실었으나 귀화인이나 특히 서남지역의 성씨 기원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많다. 또한 芝峯集을 자주 인용하여 그의 학문적 관심은 명말에 사신으로 그곳에 왔던 많은 외국사신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에 밝았던 李晬光(이쉬광:1563-1628)과 연결되었다. 이 책은 중국의 천문과 지리의 고전과 명말의 서양 지식이 소개됨으로서 고전과 동양에 소개된 초기 서양학문이 접목되어 고금이 섞

13) 현재 ‘子’가 아닌 ‘字’로 쓰였으나 권지하의 첫머리에는 ‘子’로 쓰였으므로 바로 잡는다. 감영록에도 ‘子順甫’로 쓰였고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갓머리는 加筆로 확인되었다. 이를 字로 본다면 號도 썼어야 하므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족보에 字子順은 ‘甫’가 인쇄 중에 빠졌다고 짐작된다.

14) 이를 ‘柔兆困敦之季壽星之月上澣’이라 하였다, 세보에는 그가 같은 해 5월 2일에 卒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어디엔가 착오가 있다고 짐작되므로 앞으로 밝힐 문제이다.

이는 雜駁한 특성이 있다.

[표 4] 類撰華夷雜錄의 항목과 내용 요약

부 분	항 목	내 용 요 약
自序		海外의 여러 나라의 5音으로 모든 姓氏를 분류하여 늘그막에 잠이 부족할 때 읽을거리로 전사하였다.
卷之上	天地 中國 八荒	시간(宇宙觀)과 공간(天下觀)에 대한 여러 관점을 소개. 중국의 지도와 형세 , 2장의 지도가 포함됨. 해외 여러 나라의 지도와 國名과 風俗. 1장의 지도가 포함됨.
卷之下	姓氏	중국의 여러 姓氏의 起源地 와 始祖 附東方姓氏 우리나라의 역대 성씨의 기원지와 시조 및 分貫